

진도군,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 2개 마을 선정

진도읍 신흥마을·지산면 소포마을 선정 20억원 투입해 연말까지 200세대 공급

진도군이 올해 연말까지 진도읍 신흥마을과 지산면 소포마을에 LPG를 공급한다. 군은 전남도가 지원하는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에 선정된 신흥·소포마을의 LPG 배관망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20억원을 투입,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에너지 복지 소외지역에 LPG 소형 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해 각 세대에 LPG를 공급한다. 진도군은 지난해 진도읍 송현마을(35세대), 지산면 관마마을(82세대)에 LPG 배관망을 구

축했으며, 올해는 진도읍 신흥마을과 지산면 소포마을이 사업 대상에 선정됐다. 구축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며, 사업 완료 시 진도읍을 포함 총 3,200여 세대(보급률 20%)가 도시가스 수준의 편리하고 안전한 가스를 공급 받게 된다. 등유나 개별 LPG 사용과 비교해 30% 이상의 연료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LPG 배관망 구축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는 'LPG 희망충전 기금'에서 자부담의 100%, 차상위 계층은 50%를 지

원한다. 가스가 떨어지면 LP 가스통을 개별적으로 주문해 사용해야 했지만, 배관망이 설치되면 가스 공급이 중단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진도군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장 실사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한국LPG배관망사업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실시실계 중이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사업이 마무리되면 개별적으로 가스를 주문하던 불편함이 해소되고 기존 LPG 가스통과 등유 보일러에 비해 30~40% 가량 연료비가 줄어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LPG 배관망 구축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에너지 소외지역의 에너지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진도=조성용 기자



강진군, 안전한 먹거리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개인 식기 사용·덜어 먹기·상시 마스크 착용 등 당부

강진군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식습관 개선을 위해 2022년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수립 시행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음식문화개선사업은 음식 덜어먹기 생활화, 청결한 환경 만들기 등으로 식사 문화를 개선해 건강한 식사공간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음식문화개선사업은 함께 먹는 식습관 개선운동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 등을 통해 과거보다는 많이 정착되었으나 아직도 오랜 식습관으로 인해 일부는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2022년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앞접시·국자·개인접기 사용, ▲덜어먹기 식

문화 정착,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상시 마스크 착용 생활화, ▲깨끗한 음식·환경·복합, ▲음식점 3대 정결운동 추진, ▲시설개선사업, ▲입식식탁 지원 등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코로나19로 인력 부족 문제를 겪는 업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조음파식기세척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업소 운영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군은 올해 마량 횡집거리 조성 및 병영대지불고기거리 활성화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 맛과 정결이 어우러진 맛의 1번지 강진의 명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강진=김영일 기자

장흥군, '빈들에 봄을 심다' 꽃거리 조성 데이지·페튜니아 등 6종 40000본 봄꽃 식재 및 분양

장흥군은 봄을 맞아 탐진강 변, 장흥교 등에 꽃거리를 조성하고, 읍면과 유관기관에 봄꽃을 분양해 지역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엔 심겨진 봄꽃은 지난해 11월부터 공영육묘장에서 데이지, 페튜니아 등 6종 40,000본이다.

군은 오는 7월 말 개최 예정인 물축제에 대비해 4월부터는 안젤로니아, 산파첸스 등 여름꽃 육묘를 시작했다. 가을 통합의학박람회에 사용할 국화도 1만본 이상 육묘할 계획이다. 장흥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행원리에 새로이 실증시험포가 조성되면 육묘장 확대 운영을 통해 연 50만본 이상 초화를 생



산·보급할 예정"이라며, "화사한 꽃을 보면서 모든 군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움츠러든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해남군, 청년에게 문화복지비 연 20만원 지원

해남군은 올해 처음으로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은 청년층이 필요로 하는 문화생활 향유 및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세대의 지역 정착과 취약한 인구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전남도내 2년 이상 거주하고 현재 해남군에 주소를 둔 만21~28세 청년(1994년~2001년생)이다. 단 복지포인트를 지급받는 공공기관 근무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을 당해연도 1회 이상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자, 전라남도 여성농업인인 배우처 대상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달간이며, 농협은행 홈페이지 팝업창 또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화복지카드는 온라인 결제가 불가하며, 전남도내에서 영화 관람, 도서 구입, 체육시설 이용, 호텔 숙박 등 문화·여가, 관광, 자기개발 등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받은 후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6월 중에 카드가 발급 될 예정이다. 12월까지 사용가능하고 남은 금액은 이월이 불가하니 올해 모두 소진하여야 한다.

기동취재본부

강진군, 금곡사 벚꽃축제 취소...벚꽃길은 개방 야간조명·편의시설 등 운영

강진군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오는 3월 말 개최 예정이었던 '제5회 강진금곡사벚꽃삼삼리길축제'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축제는 당초 4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강진 군동면 금곡사 일원에서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감염병 전국적 확산에 따라 공식 축제 일정은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공식적인 축제 일정은 취소됐지만 4월 1일부터 10일까지 벚꽃길을 찾는 군민과 나들이객들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시설, 야간조명, 버스킹공연, 편의시설 등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야간조명은 4월 1일부터 10일간 19시부터 23시까지 켜지며, 기간 이후에도 조명은 21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또, 버스킹 공연은 4월 2일부터 3일까지 12시와 17시에 대회 1시간, 총 4회 공연도 진행된다.

강진금곡사벚꽃삼삼리길은 군동면에서 작전면을 잇는 수려한 삼삼리 벚꽃길로 매년 봄을 느끼기 위해 군민들과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끊이지않던 지역 명소이다.

윤성일 문화예술과장은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축제를 취소하게 됐다"며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방문 해주시라"고 당부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